

대만의 육아정책

이정림 부연구위원

최근 유보통합에 대한 의제가 거론되기 전에는 대만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유아교육 및 보육이 이원화된 체제에서 유지되고 관리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는 대만 ECEC 정책의 발전과 보육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대만정부는 출산율 저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만의 육아정책에서 공적투자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공적 투자에 대한 관심은 결국에는 최근 유보통합을 위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역사적 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 및 보육의 체제 이원화와 통합의 과정, 육아정책의 변화과정 등의 측면에서 대만의 ECEC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현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유보통합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대만 육아정책의 내용 및 유보통합의 발전과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 들어가면서

대만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체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국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과 시스템이 비슷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육아정책에 시사 받을 수 있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최근 대만의 ECEC 정책의 중요한 행보 중 하나는 유보통합을 위한『유아교육보육법』의 입법화이다. 대만 역사에서 최초의『유아교육보육법』은 2011년 6월 10월에 입법부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 5세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게 될 교육과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보통합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유보통합을 이루어진다면 어떤 점이 수용할 만하고 어떤 점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 인지를 평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대만의 유보통합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대만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역사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 시행하였던 내용들을 관련법과 제도들을 함께 살펴 보면서 대만의 육아정책의 역사와 현재의 유보통합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대만의 육아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까지 대만의 ECEC 서비스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취학전 교육 및 보육의 제공기관, 지원 형태 및 서비스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만의 ECEC 정책의 발전에 관련된 요인들이 어떻게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만의 유보통합 정책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만 ECEC 서비스의 배경지식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비슷한 형태로, 대만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서비스도 매우 오랜 시간동안 두 개의 다른 정부부처에서 분리하여 관리하여왔다. 취학전 교육과 아동보육은 각각 교육과 복지 당국의 지원 하에 있었다. 그러나 ‘ECEC법’의 공포로 인해 ECEC의 행정 당국은 2012년 초에 조정될 예정이다. 본 장에서는 2012년 ECEC법의 적용 이전인 현재까지의 취학전 교육 기관인 유치원과 보육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취학 전 교육 지원 및 제공(유치원)

1) 지원(Auspices)

교육부(MOE)는 만 4세부터 6세까지 아동을 대

상으로 조기교육경험을 제공하는 취학 전 교육과 만 6세부터 15세까지의 취학교육, 총 9년의 의무교육을 관장한다. 유치원은 학교 체제 교육에서의 단일 유형이며, 1981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유치원교육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새로 제정되는 ECEC 법령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 식민지 시절(1895~1945년)과 대만으로 이전하였던 중국(국민당, KMT: Kuomintang) 정부 초기에는(1949~1954년), ECEC 시설들이 몇 개 되지 않았다. 사실 1970년 이전의 대만은 거의 농업 사회나 다름이 없었다. 맞벌이 가정에 서만 영유아보육 및 교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부유한 가정에서는 ECEC 서비스를 이용할 수 경제적 능력이 있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였다.

2) 공립 유치원의 정책: ECEC에 대한 공적 투자

대만에서 거의 모든 공립 유치원은 일반 초등학교의 부속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몇 유치원들은 교육대학 부속으로, 실습을 위한(실험적)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기도 했다. 1962년 이전의 공립 유치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에 의해 설립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의무교육 예산에서 지원되는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 취학 전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모두 조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시·군단

위의 지자체에 의해 공식화된 등록금의 약 40~60% 정도를 부모가 지불해야 했다. 이 경우 ECEC 서비스 비용을 정부와 부모가 함께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1962년에는 취학 전 아동은 의무교육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의 정부 자금 사용은 금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들은 자립형 취학 전 학교로 변형하거나 단설 유치원이 되어야 했다. 그때부터 많은 공립 유치원들이 문을 닫았고, 계속 운영하는 곳은 부모가 운영비 전체를 부담하는 곳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등학교 부속의 독립 유치원은 영유아 보육·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 비영리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립 연합 취학 전 교육기관과 유사하였다. 운영비는 부모가 전체 혹은 함께 부담을 지기도 하였고, 이렇게 부모가 지불한 비용은 “공정한 비용”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사실 학교나 당국이 초등학교 부속 단설 유치원(the affiliated independent kindergartens)에 기여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간과 기존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1973년, 대만 정부는 초등학교 부속 단설 유치원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에 남은 공간이나 빈 교실을 취학전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등학교 부속 단설(비기금) 유치원을 위한 시험용 프로그램 방향(pilot program directions for independent(non-funded) kindergartens affiliated with

elementary schools)”을 발표하였다.

1986년에는 “각 지역에 최소한 한 개의 공립 유치원이 있어야 하며, 각 마을에 한 개의 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새로운 정책이 제안되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예산 지원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시기에 공립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비용이 무료는 아니었다. 여전히 부모들은 지자체에서 규정한 고정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불해야 했다.

3) 취학 전 교육기회 제공

1986년의 정책 시행을 따라 공립 유치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표 1>을 통해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다.

- 1985년에 공립 유치원의 수는 158개였다. 553개의 교실에 17,859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유치원 당 평균 약 113명, 한 교실 당 32명의 아동이 있었다.
- 1990년에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여 공립 유치원의 수는 696개였다. 1,665개의 교실에 47,388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유치원 당 평균 약 68명, 한 교실 당 29명의 아동이 있었다.
- 2000년에 공립 유치원의 수는 1,230개로 확장되었다. 2,776개의 교실에 73,434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유치원 당 평균 약 60명, 한 교실 당 27명의 아동이 있었다.
- 2010년에 공립 유치원의 수는 1,560개로 늘었다. 3,076개의 교실에 72,027명의 학생들이

1) 1998년 정부조직이 재편성되어, 이 권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표 1 〉 유치원, 학급 및 재원 아동수(공립/사립)

년도	공립			사립			전체		
	유치원	학급	아동	유치원	학급	아동	유치원	학급	아동
2010	1,560	3,076	72,027	1,723	6,416	111,874	3,283	9,492	183,901
2005	1,474	3,166	69,186	1,877	7,547	155,033	3,351	10,713	224,219
2002	1,331	2,900	76,382	1,944	7,333	164,798	3,275	10,233	241,180
2000	1,230	2,776	73,434	1,920	7,258	169,656	3,150	10,034	243,090
1995	883	1,968	55,529	1,698	6,677	184,839	2,581	8,645	240,368
1990	696	1,655	47,388	1,809	6,457	189,897	2,505	8,112	237,285
1987	639	1,601	47,569	1,879	6,769	202,610	2,518	8,370	250,179
1985	158	553	17,859	2,052	7,115	216,815	2,210	7,668	234,674
1980	404	1,065	44,934	782	3,527	133,282	1,186	4,592	178,216

있었고, 유치원 당 평균 약 46명, 한 교실 당 24 명의 아동이 있었다.

- 2010년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아동수는 183,901명인데, 그 중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은 60.1%(111,874명),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은 39.9%(72,027명)이다. 재원 아동의 수는 지난 30년 간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
- 사립 유치원은 1985년에 아동 수가 절정에 다다랐는데, 216,815명의 아동이 2,052개의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같은 해 단지 158개의 공립 유치원에는 17,895명(7.6%)의 아동이 다니고 있었고, 유치원을 다니는 전체 아동수(234,674명)의 10%도 되지 않았다.
- 1987년에 전체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250,179 명이었는데, 민간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202,610명(81%)이고,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가 47,569명(19%)이었다.
- 2002년에는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가

76,382명으로 많았는데, 전체 241,180명 중 31.7% 정도이었다.

나. 아동보육서비스: 지원과 서비스유형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 MOI)의 아동복지국(Child Welfare Bureau, Ministry of Interior R.O.C : CBI)은 생후 1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가정 및 기관 중심의 보육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육서비스 모두 『아동청소년복지법(Children and Youth Welfare Act: CYWA)』와 관련한 하위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1) 가정 보육(In-home child care)

가정 보육은 베이비시터를 포함한다. 여기서 베이비시터는 부모가 고용하여 아동의 집에서, 혹은

베이비시터 자신의 집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모두를 뜻한다. 후자의 경우는 ‘가정 보육(family child care home)’이라고 부르며, 이 서비스는 주로 만 0세부터 2세의 영아 2~3명을 보육하지만 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2) 기관 보육

기관 중심의 아동 보육시설에는 영아보육시설, 아동 보육시설/유아원, 취학아동보육시설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각 기관보육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영아보육시설(infant care center)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생후 1개월부터 만 2세까지를 보육하는 영아 보육시설(creche)은 유아원(nurseries) 부속으로 혹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영아 보육의 수요가 많아서, 대부분의 영아 보육시설들은 정원이 꽉 차있거나 대기자 명단이 길다. 2006년에는 단독으로 설립된 영아 보육시설 111개가 있었고, 보육 아동 수는 1,626명이었다. 2010년까지 169개의 영아 보육시설이 생기고, 재원 아동이 3,254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 아동 보육시설/유아원(child care center, nursery)

유아원은 주로 만 2세부터 6세의 아동을 보육하며, 취학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이나 영아를 보육하기도 하는 서비스 기관이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유아원의 역사는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이야기할 수 있다. 농업 가정의 바쁜 수확 기간 동안 아동의

보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1955년에 대만 정부는 “농번기 보육 프로젝트(harvest busy child care project)”라는 경제성과 결합된 복지 정책과 “보육시설 설립 규정”을 처음 제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농번기 동안 바쁜 농업가정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농번기는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빈 교실이나 마을 회관, 지역 사회센터를 사용하여 보육이 이루어졌다.

다) 취학 아동 보육시설(school-age child care center)

방과 후 보육이라고 부르는 취학 아동 보육시설은 만 6세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는데, 보육시설 부속이거나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1985년 이후로 취학 아동 보육시설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취학 아동 보육시설의 60% 이상이 도시 지역에 설립되었다. 2002년까지 아동국(The Children's Bureau)에서는 공식적으로 방과 후 보육을 하나의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분류하였고, 전체 1,015개의 시설에서 40,309명의 취학 아동을 보육한다는 통계치가 보고되었다. 2010년경에는 824개(보육시설 부속기관은 제외됨)의 방과 후 보육 시설에서 35,521명(유아원 부속의 방과 후 보육시설 포함)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3. 대만의 ECEC정책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가. ECEC 정책의 발전에 관련된 요인

앞서 대만의 보육 및 교육정책의 변화과정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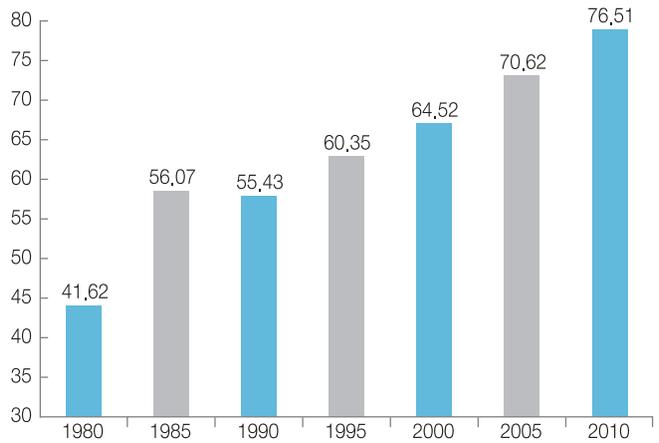
해서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대만의 ECEC 정책의 발전과 보육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의 ECEC정책의 발전 및 보육서비스에 영향을 준 두 가지 요인은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를 들 수 있다. 이에 두 가지 요인에 관한 경향을 다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낮은 출산율의 반향에 대만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러한 대처 방안이 대만의 육아정책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 경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ECEC 정책의 발전과 보육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간단히 말해서, 취학 전 아동이 있는 여성이 직장에 다니려고 한다면, 그 여성은 일과 아동 양육을 양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만 25~44세 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3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의 여성 취업률은 1980년도에는 41.62% 수준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76.51%로 약 35%정도가 증가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

는 여성 개인은 자신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가계경제와 사회경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들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이슈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만도 예외는 아니다. 일-가정 양립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만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여성 및 남성의 출산휴가(maternity and fraternity leave), 부모 출산휴가(parental leave), 가족 출산휴가(family leave), 탄력 근무제(flexible working hours), 아동보육의 확산 및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 등과 같은 방안들을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물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림 1] 대만의 만 25~44세 여성 경제참여율(198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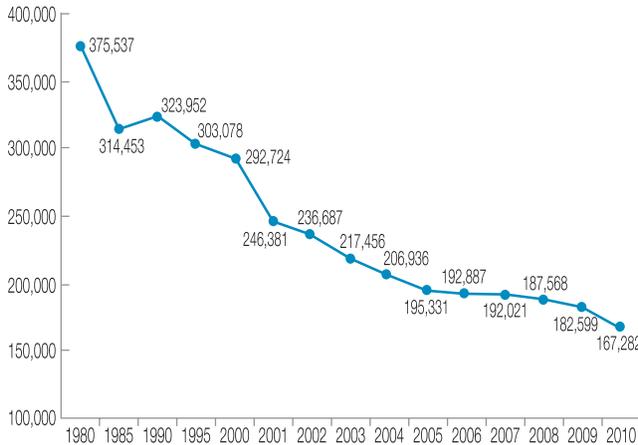
2) 출산율 감소

출산율은 1년 간 새로 태어난 아동의 수를 의미하는데, 아동보육서비스와 ECEC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다. 아동보육서비스

〈 표 2 〉 연간 인구, 신생아 수, 출산율, 여성경제참가율

년도	전체 인구	연령 (만 0-2)	연령 (만 2-6)	연령 (만 6-12)	연령 (만 0-12)	만 0~12세 비율	신생아수	출산율	취업여성
2010	23,162.1	352.2	820.5	1,538.8	2,978.9	12.9	167.3	1.01	76.51
2009	23,119.8	381.4	839.5	1,587.4	3,131.6	13.5	182.5	1.03	75.58
2008	23,037.0	393.0	860.8	1,682.8	3,259.0	14.1	187.6	1.05	74.83
2005	22,770.4	413.6	1,037.1	1,843.5	3,620.7	15.9	195.3	1.12	70.62
2000	22,276.7	575.2	1,238.9	1,937.0	4,092.8	18.4	292.7	1.68	64.52
1995	21,357.4	623.8	1,302.4	1,969.7	4,272.4	20.0	303.0	1.78	60.35
1990	20,401.3	639.6	1,318.5	2,364.1	4,724.1	23.1	324.0	1.81	55.43
1985	19,313.8	678.9	1,594.8	2,352.1	4,984.9	25.8	314.4	1.88	56.07
1980	17,866.0	785.7	1,577.5	2,222.1	4,971.0	27.8	375.5	2.52	41.62

주: 인구 단위(1,000명), 취업여성은 만 25~44세 사이의 연령의 여성을 의미함.



[그림 2] 1980~2010년 대만의 신생아 수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출산율이 높으면 아동보육서비스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고, 반면 감소하는 출산율은 아동보육서비스의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다. 대만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동의 수는 지난 30년 간 빠르게 감소해오고 있다. 〈표 2〉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매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1980년 375,500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는데, 20년 후인 2000년에는 신생아 출생률이 292,700명으로 22%가 줄어들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출산율은 2.52명에서 1.68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0년(2000~2010년) 동안 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하게 되었다. 2010년의 출산율은 1.01명으로 줄어들었고, 신생아 출생 수도 167,30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생아 출생 수가 46.3%

정도 줄었고, 출산율은 0.67명이 줄었다. 그러나 출산율과는 반대로 취업여성은 1980년 41,620명에서 2010년에는 76,510명으로 약 83.8%가 증가하였다.

즉, 취업 여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반대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ECCE와 관련된 정책이나 공적 투자와 같은 질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아동보육서비스 시

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인 OECD와 UNESCO에서는 선정된 몇 나라들의 ECEC 정책시행 경험에 대해 검토하고 발표하였다. 이 국가별 보고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적절한 공적 투자가 '여성/가족, 혹은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여성경제참여율과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나. 출산율 감소 위기에 대한 반향: 이념 변 화의 전환점

비록 출산율 감소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켰음에도, 이러한 위기는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젊은 부부가 기꺼운 마음으로 출산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만은 그 문제에 당면해있는 상황이다. 출산율 감소는 대만 정부 당국에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1년 1월, 마잉주 총통은 대만 출산율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 안보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래서 정부 관련 부처들에게 전 부처를 통합하는 팀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초부터 아동양육과 아동보육서비스 부분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회의에서 여러 논의를 해왔다.

현재 대만의 ECEC 정책 발전은 좌로나, 우로,

혹은 제3의 대안이던지 어떤 방법으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 고심하는 기로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들부터 구체적인 공공정책 내용까지 이슈화되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석상에서 자주 논의되는 핵심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정책적 투자 확장을 한다면, 정책적 자금을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 어떻게 분배하여 투자해야 할 것인가?
- 부모와 정부가 함께 보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보조금 지급 방식이나 접근 방식과 비용부담 비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보육서비스(시장, 공공 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비용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중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실 크기, 교사와 보육사의 자격,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포함한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표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요약하면, 낮은 출산율 위기에 대한 해결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공적인 투자의 확대가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양육수당, 아동보육·교육 보조금, 공립 보육·교육 체제 수립 등을 포함한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4. 대만 유보통합의 역사

최근 유보통합의 근간이 되는 『유아교육보육법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ct)²⁾의 입법화는 대만 ECEC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대만의 역사에서 첫 『유아교육보육법』은 2011년 6월 10월에 입법부에서 통과되었고, 그 해 6월 29일에 공식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다음에서 대만의 유보통합 정책 발전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998년 전 행정부 수상 Yuan Xiao Wang은 교육과 복지 부처에서 공개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을 위한 적합한 프로젝트를 협력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공시하였다.

2000년 ‘ECEC 통합 프로젝트 초안’ 1판에서는 보육은 만 0~3세를 담당하고, 유치원은 만 3~6세를 담당하는 형태의 연령으로 이분화 하는 이원화된 모델(split model)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교육부 장관에 의해 무산되었다.

2000년 말, 대만의 민주진보당(K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행정부 산하의 교육부는 ‘유아교육 정책 자문단’을 만들어 ECEC 통합 정책 수립을 다시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교육부와 내무부 장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여 ‘ECEC 통합 추진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필요한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기 위해 세 개의 정책연구팀이 위원회 내에 조직되었다.

2002년 말에 ‘ECEC 통합 정책 계획 보고서 초안(draft)’이 공포되었고, 많은 자문회의와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05년 ‘ECEC 통합 프로젝트 자문위원회’와 관련 업무를 진행할 7개의 실무단이 ECEC 법 초안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가 집단을 포함하여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서 ECEC 법은 만 0~12세 아동을 위한 모든 유형의 ECEC 서비스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006년 ECEC 법 초안을 준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유아교육보육법(ECEC Act)이 ‘아동교육보육법(Children Education and Care Act: CEC Ac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7년 행정부 수상 Yuan이 CEC 법 초안을 승인하고 공식적인 검토를 위해 입법부의 Yuan에게 보내졌다. 전체 내용은 8개의 장과 7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CEC 법은 입법 회기동안 의제에 상정 되지 못했다.

2009년, 모든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 CEC 법 초안은 입법부의 Yuan에게 다시 검토를 위해 보내졌다. 이때 제출된 전체 내용은 8개의 장과 6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에서 로비 활동이 각각 진행되다가, 결국 8개의 장과 6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ECEC 법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두 개의 체제가 통합되는 형태라기보다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라는 두 개의 기관을 통합하는 형태인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었다.

2)본고에서는 이하 ECEC 법으로 통칭하고자 함

5. 대만의 유보통합 과정이 주는 시사점

대만 유보통합에 있어 ECEC 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장기 계획팀의 의장이며 입법단의 멤버로 참여했었던 Khoo교수와 같은 관련전문가들은 정부 관료들, 입법자들, 그 외의 관련자들이 ECEC 법의 제정이 유아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 사건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자랑스럽게 선언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대만의 유보통합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특히 Khoo교수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기관에 대하여 신중해야 하며, 아동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특히 아이들의 흥미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Khoo교수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진정한 통합이란 단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라는 두 개의 기관이 통합되는 형태이

기보다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련된 서비스 전체를 망라하여 하나의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육아정책서비스와 관련해서 비슷한 시스템과 정책이 이루어져왔던 대만의 유보통합 과정과 입법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대만의 유보통합 역사가운데 정치적이고 이권다툼의 모습들이 정책입안의 많은 부분에 작용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동의 행복과 관련된 부분임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Khoo 교수를 비롯한 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향후 우리나라가 유보통합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합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유보통합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실질적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유보통합에도 상당부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유보통합과정과 입법화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